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앞부분 줄거리]** 위세를 떨치던 안양덕 집안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원석이 양덕영감의 집에서 명절 떡을 훔쳐 온다. 이 떡으로 또쇠 아버지와 치전(길성 아버지)이 떡 먹기 내기를 하다가 치전이 급체로 죽는다. 이 일로 인해 순사가 양덕영감을 찾아온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리 오너라.” 하며 순사는 죄인이나 다루듯이 원석이의 소맷자락을 잡아 채친다. 가슴이 떨리나 하는 대로 내버려두었다.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고까지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였다. 사랑 마당에 들어서서도 원석이의 소매를 놓지 않고 큰방에다가 대고 주인을 부른다.  노영감이 유리로 내다보다가 누구든지 나가 보라고 소리를 치니까 약(藥) 맡아보는 ⓐ선달 이 나왔다.  당신이 주인이오?”  “아녜요…….” 하고 이 늙은이는 벌벌 떨면서 뒤로 들어가더니 곧 양덕영감이 나왔다.  “왜 그러우?”  양덕영감은 망건을 도드라지게 쓴 위에 곱다란 인모탕건을 얹어 놓았다. 탐스런 대모풍잠이 은은히 비추인다. 말소리가 좀 거만한 듯한 데에 불끈한 순사는,  “당신이 주인이요? 호주요?” 하고 연거푸 물었다. ⓑ양덕영감 은 왜 그러는지 잠깐 머뭇거리다가,  “네.” 하고 겨우, 그러나 아까보다는 좀 **수그러진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주재소로 좀 갑시다. 어서 옷 입으우.”  “무슨 일인데요?”  “나도 모르우. 어서 옷 갖다가 입우.”  이러는 동안에 노영감은 마루로 나서고 ⓒ꼬깔 참봉 은 누가 기별했는지 안에서 눈이 뚱그래서 고깔을 휘젓고 튀어나오고 아들 손자 하인 할 것 없이 삽시간에 마당이 빽빽하게 모여 들었다. 원석이 처는 코끝이 빨개서 뛰어나와서 **똥그란 두 눈을 홰홰 내젓**다가 남편이 순사에게 붙들려 섰는 것을 보고 틈을 비비고 나서다가 꼬깔 참봉께 **호령**만 당하고 사람의 틈으로 물러섰다.  “왜 그러슈? 치전이 죽은 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하고 갑시다.”  꼬깔 참봉이 나서며 이렇게 물었다.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었다. 벌써 소문이 돌았던 게다.  “응? 치전이가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그중에서는 들렸다. “그럼 갈 테건 당신도 갑시다.” 하며 ⓓ순사는 부자를 다 데리고 갈 눈치다. 꼬깔 참봉이 나중에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쇤네**를 개올려 가며 애원을 해 보았으나 끝끝내 고집을 세우고 어디로 도망이나 할 염려가 있는 듯이 부자의 옷을 내어다가 입혀서 앞장세우고 주재소로 갔다. **경관의 앞**에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 ㉢이런 일은 이곳에 주재소가 나와 선 지 수십 년 내에, 아니 이 집의 가문에 없던 일이었다.  **(중략)**  치전이의 장사는 하여간 이와 같이 하여 그날 저녁때에 눈발이 날리고 쓸쓸한 가운데－그러나 읍내의 청년 단체의 대표자의 호상까지 받고서 무사히 지냈다. 송장을 파묻고 내려올 제 그 청년들은 원석이를 붙들고,  “기위 양덕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니 나올 바에야 오늘로라도 나오슈. 우리도 이리 올 때에는 그 집에 가서 장비라도 부조를 하라고 권고를 할 작정이었으나 **그까짓 놈**이 내놓으면 얼마나 내놓겠소. 그래서 그만두었지만 저희도 좀 **정신 차릴 날**이 있으리다.” 하며 남의 일이건만 왜 그러는지 성벽을 내어서 여러 사람을 충동이는 것 같았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좀 양덕 댁에 말해 볼까 하다가 핀잔만 만날 것 같아 그만두었습죠.”  원석이도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그렇다마다요. ㉤우리 지부에서도 창립할 때 원조를 청했더니 단돈 일 원 한 장도 안 내고 그런 건 우리는 모릅니다고 뻣뻣 하기가 바지랑대\*던데…….”  이것은 또 다른 청년의 말이다.  “그는 하여간에 김원석 씨는 그 집에서 나오면 당장 어데를 가시려우?”  거의 길성이 집 근처까지 와서 한 청년은 원석이를 쳐다보며 발을 멈춘다. 길성 어머니는 어찌나 추운지 이제는 울지도 못하고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달음질을 해 간다.  “왜 그러시죠? …… 저두 이번 일에 무식한 생각이나마 **깨달은 것이 있**어서 단정코 서울로 올라가렵니다.” 하고 원석이도 발을 멈추며 섰다.   |  |  |  | | --- | --- | --- | |  |  | “서울루? 서울루 가서 뭘 하려우?”  “무얼 하자는 게 아니오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땅뙈기라도 부쳐서 먹고 지내려면 지낼 수도 있겠지마는요…….” 하며 원석이는 추운지 어깨를 으쓱하며 두루마기 소매로 코를 쓱 씻는다. 여러 사람은 원석이의 나중 말을 들으려는 듯이 잠자코 쳐다본다.  “글쎄 말요. 시골 사람은 덮어놓고 서울 서울 하지만 서울 처음 가서 어름어름하다가는 여기 있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청년은 이런 소리를 한다.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하며 원석이는 자기가 아직 나이 늙기 전에 노동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해서 **사람답게 살아 보겠다**는 말이며 길성이네 네 식구를 적어도 장래는 자기가 뒤를 보아주어야겠다는 말, 또 이곳에 떨어져 있으려면 친구들에게 낯이 없어서 괴롭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간단히 말하였다. | |  |  | | [A] | | |  |  | |  |  |   -염상섭, ｢두 출발｣-  \* 바지랑대: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 |